

1950년대 『학원』 매체에 수록된 시적 경향 연구

윤 현 진*

1. 머리말
2. 해방과 애국: 전후 시정신과 민족시의 전개
3. 순수과 서정: '소년' 화자와 구세대의 현실 인식
4. 역동적 소년과 교양적 소년의 형상
5. 피란지 부산의 기억과 고향의 연(戀)
6.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1950년대 발간된 『학원』 매체를 대상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학원』의 시적 경향을 주제별로 규명하고, 기성시인의 작품에서 한국전쟁의 상흔은 어떤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학원』의 문학적 성격은 '중·고등학생 문예지'라는 매체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학에서 해방 이후부터 편성된 시 문단과 1950년대 새롭게 등장한 시인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바, 이를 두루 살펴 그 시적 경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1950년대 발간된 『학원』 총 81호에서 매체 발간에 참여한 기성시인의 작품을 선별하여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민족상잔(民族相殘)의 경험은 해방과 애국의 정치성을 띤 시가 이념의 대립 문제와 만나면서 과열되는 경향을 보였고, 친미(親美)적 성향이었던 『학원』 매체에 참여한 기성시인은 해방시단에서 우익 계열의 민족문학을 전개하면서 문학의 자율성과 심미(審美)주의적 순수성을 표명했다. 또한 불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dlgusgus@pusan.ac.kr)

확실성, 실존에 대한 상실의 인간적 모습에 대비되는 소년을 노래하면서 젊은 세대를 겨냥한 역동성과 교양적 인간을 통해 현실극복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한편, 전쟁의 체험을 통해 현실의 시적 수용에 부심한 흔적도 엿보인다. 전쟁으로 인한 피란민으로서의 경험은 피란문단을 형성하게 했고, 피란지의 주요 배경인 부산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세대를 뛰어넘는 인간의 군상(群像)을 대변하고 있었다. 분단으로 인한 실향의 경험은 근원의 상실감으로부터 자기 본연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애향심(愛郷心)을 드러내고 있었다.

* 주요어: 『학원』, 1950년대 매체, 청소년문예지, 한국전쟁, 전후시

1. 머리말

본 연구는 1950년대 발간된 『학원』 매체를 대상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학원』의 시적 경향을 주제별로 규명하고, 기성시인의 작품에서 한국전쟁의 상흔은 어떤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전쟁기에 발간된 『학원』 매체는 전쟁의 충격과 사회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소위 잃어버린 문학의 시대¹⁾에 한국문학과 청소년문학의 재도약을 시도했다. 『학원』 매체가 처음 발간된 시점인 1952년 11월은 한국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한국은 1945년 8월 해방을 맞이한 지 몇 해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그럼에도 『학원』은 출판인 김익달을 중심으로 전후 재편된 문인과 예술인이 문예의 혼을 놓지 않고 맥을 함께한 결과물이며, 문학의 후속세대인 청소년을 문단으로 이끌어 내는 교량적 역할을 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학원』의 문학적 성격은 ‘중·고등학생 문예지’라는 매체의 특성²⁾에도 불구하고

1)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2, 민음사, 2017, 104쪽.

2) 김한식, 「학생잡지 『학원』의 성격과 의의 - 1950년대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28, 상허학회, 2010, 291~323쪽.

하고, 한국문학에서 해방 이후부터 편성된 기성문인과 1950년대 새롭게 등장한 문인과 관련해 두루 살펴야 한다.

1950년대 『학원』 매체에서 다룬 시의 경우 김광섭, 김용호, 노천명, 박남수, 박두진, 박목월, 서정주, 신석정, 신석초, 유치환, 장만영, 조지훈, 주요한, 최남선 등 기성시인이 주를 이룬다. 이외에 고원, 공중인, 구상, 권오택, 김규동, 김동명, 김동환, 김상화, 김시철, 김영일, 김요섭, 김윤성, 김종권, 김종문, 김춘수, 김현, 김현승, 노문천, 모운숙, 박거영, 박남수, 박인환, 박종화, 박지수, 박치원, 박훈산, 석계향, 설창수, 양명문, 양주동, 오상순, 유경환, 유정, 이덕진, 이동주, 이봉래, 이석인, 이설주, 이영희, 이원수, 이인석, 이장희, 이종택, 이활, 이흥우, 임인수, 전봉건, 조병화, 한무학, 허선주, 홍성문, 황석우 시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³⁾ 동요, 소년 소녀 신춘 애창곡집, 이숲 노래 등을 ‘시’라 명명하며 노래로 작시한 박두진, 김영일, 양주동, 윤석중, 이은상, 정인섭 등의 작품도 여럿 수록되어 있다.

이들은 해방 직후 문단의 조직을 정비하면서 폭넓은 시단을 형성하게 되었고, 시적 세계를 새롭게 확장하기 시작한다. 양립된 이데올로기에 대한 고민과 전쟁의 비극을 체험하며 겪었던 시련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작품에 녹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냉전의 이데올로기가 한국사회에 스며든 1950년대는 시가 한 시대적 정치적 요구나 도구로 전락해버릴 수 있었던 시대였고⁴⁾, 이는 새로운 개혁의 주체를 주된 독자로 삼았던 『학원』 매체가 강력한 계몽적 특성을 바탕으로 국가존립의 선전적 역할을 했을 가능성⁵⁾도 배제할 수 없다.

3) 이외에도 고고학자 김원룡은 2권 6호에 「시골 처녀」, 소설가 김기진은 2권 5호에 「바다로」, 아동문학가 방정환은 2권 5호에 「형제별」, 소설가 최인옥은 2권 5호에 「바람 속에서」, 시조시인 이은상은 5권 3호에 「동심」이라는 시를 게재하기도 했다.

4) 이에 대해 김광균은 “8.15 이후 정치성을 띤 행사나 혹은 비상사건이 있을 적마다 거의 시인들이 이를 취재하여 시를 썼다.”며 시의 정치성의 편향을 비판했다(김광균, 「문학의 위기 - 시를 중심으로 한 일년」, 『신천지』, 서울신문사, 1946.12., 116쪽).

5) 『학원』 창간사에서도 알 수 있듯, “우리의 장래가 모든 학생들의 두 어깨에 달려 있다는 것”에 대한 염려와 “중학생들을 위한 참된 교양”을 통한 계몽이 주된 목표였다. 또한 편집부, “국가 장래를 위한 인재 양성”을 최우선적인 비전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 있다(편집부, 『학원』, 1권 1호, 대양출판사(학원사), 1952.11., 7, 114쪽).

반면, 혼란스런 사회적 징후 속에서도 시의 순수성과 서정성을 놓치지 않으려한 흔적도 찾을 수 있다. 월간지였던 『학원』 매체의 간행에 따라 계절, 자연의 현상을 다루면서도 넓게는 생명의 본질, 개인적 감정 등을 주제로 잡은 시도 더러 존재한다. 이처럼 이념이나 사회의식을 외면한 것으로도 보이는 작품은 시대적 갈등이 자기 내면에서의 갈등과 극복을 통해 가능해진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 그 대세를 그대로 따르려는 태도를 드러내고자 했음 짐작 할 수 있다. 이 같은 양상은 전후적 징후라고 할 수 있는 정서적 충동이 여러 경향으로 나타난 것이라 볼 수도 있겠으나,⁶⁾ 해방 이후부터 우익 민족문학론의 뿌리를 이룬 이른바 '순수문학은 곧 문학정신의 본령이며, 그것은 인간성 옹호에 있다.'⁷⁾로 요약된 주장이 남한 사회의 지배적인 시적 경향으로 떠오르면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1950년대 한국문학에서 전쟁의 상흔은 피란지인 부산 지역과 관련되어 있으며,⁸⁾ 이는 피란시절 발간된 『학원』 매체의 서정적 배경에도 등장하고 있다. 전중기(戰中期) 형성된 피란문단은 전쟁의 체험을 통해 현실의 시적 수용에 부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그들에게 전쟁으로 인한 피란민으로서의 경험은 피란지의 주요 배경인 부산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세대를 뛰어넘는 인간의 군상(群像)을 대변하고자 했던 흔적으로 보인다. 또한 분단으로 인한 실향의 경험은 근원의 상실감으로부터 자기 본연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애향심(愛鄉心)을 드러냄으로써 귀향(歸鄉)하지 못한 모든 이의 연(戀)을 대변하고 있다.

기존 논의와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⁹⁾ 『학원』 잡지에 대한 연구는 시작단

6) 권영민, 앞의 책, 2017, 139쪽.

7) 김영민, 『한국현대문학비평사』, 소명출판, 2000, 75쪽.

8) "한국전쟁기 문학 연구는 많은 성과를 축적해 왔는데도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문학현실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에는 이르지 못한 감이 없지 않다. (중략) 다른 지역과 달리 부산은 피란문단이 두텁게 형성됨으로써 한국문학의 보편성을 담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순옥 외, 『피란수도 부산의 문학풍경』,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8, 13~14쪽).

9) 『학원』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장수경, 「1950년대 『학원』에 나타난 현실인식과 계몽의 이중성」, 『한민족문화연구』 31, 한민족문화학회, 2009, 435~462쪽; 장수경, 「『학원』의 '학원문단'과 '학원문학상'의 의미: 독자 투고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38,

계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출판 시기별로 범위를 정하여 청소년문화, 교양, 계몽으로의 성격을 지닌 매체로 분석하거나, 1950년대 출판 환경을 개괄적으로 논의하는 과정 중 『학원』이 대중화에 성공한 매체라는 점을 간략하게 제시하는데 그쳤다.¹⁰⁾ 또 『학원』의 「독자문예」에 투고된 고등학생의 작품을 분석하여 당시 고등학생 집단의 정체성을 파악하거나, 발간 초창기 2년간 투고된 청소년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선자의 심사평에 나타난 학생문예관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대체로 『학원』을 청소년이라는 세대 매체에 집중하고, 시대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접근은 그 연구가 미진했다.

『학원』을 포함해 아동-청소년 매체에 대한 작가와 작품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조금씩 나오고 있으나, 전후 아동-청소년 출판 매체에서 시 혹은 동시, 동요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적은 편이다. 그 사유는 일차적으로 문학 자료 부족에 연유¹¹⁾하겠으나, 그동안 『학원』이 아동매체이면서 대중매체로 인식되어 주류 한국문학사 중심의 연구 풍토에서 배제되어 왔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전후문학이 형성되는 격랑의 한 복판에 『학원』은 탄생했고, 기획 및 집필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학원』 잡지에서 탄생한 학원문단 출신 문인의 초기작도 한국문학의 주요한 문학적 성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대상은 1950년대 발간된 『학원』 총 81호(1952.11.01.~1959.12.01.)이

현대문학이론학회, 2009, 263~286쪽; 김한식, 「학생잡지 『학원』의 성격과 의의 - 1950년대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28, 상허학회, 2010, 291~323쪽; 유은지, 「1950년대 한국 고등학생들의 집단정체성에 대한 연구: 학생 잡지 『학원』의 「독자문예」를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38,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2020, 85~106쪽; 이봉범, 「전후 문학장의 재편과 잡지 『문학예술』」, 『상허학보』 20, 상허학회, 2007, 271~309쪽; 황혜진, 「『학원』의 심사평에 나타난 학생문예관 연구」, 『국어교육연구』 1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6, 247~297쪽 등이 있다.

10) 1950년대 『학원』은 한국전쟁, 분단, 근대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서 집단적이고 계몽적인 문화의 흐름 속에서 선진 문화의 기획과 전파매체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면서도 한국문학과 담론의 주체를 재생산하면서, 청소년을 대중 독자로 견인하는데 성공하였다(장수경, 『학원과 학원세대』, 소명출판, 2013, 19쪽).

11) 이순옥, 『근대시의 전장』, 소명출판, 2014, 12쪽.

다.¹²⁾ 여기서 매체에 수록된 기성시인의 작품 총 173편을 살펴보니,¹³⁾ 주제별로 분류하여 주요한 작품을 간략하게 제시하겠다. 둘째, 1950년대 발간된 『학원』 총 81호의 시 목록 분석을 통해 당대 활동 했던 문인에 주목하고, 1950년대 한국 사회의 시대적 창간된 종합 문예지 『학원』의 실체에 한걸음 다가섬과 동시에 한국 청소년문학, 나아가 한국 문학사 전반에 걸친 흐름을 찾아가고자 한다. 셋째, 『학원』 매체 혹은 잡지 매체가 수록하고 있는 수필, 취재 기사, 시사, 특집 자료를 통해 1950년대의 사회사를 간접적으로 살펴보고, 『학원』 매체의 시적 경향을 규명 혹은 논쟁하는 근거 자료로서 제시하겠다.

본고가 주목하는 점은 (청)소년을 민족의 주체, 미래의 주체로 세우고자 했던 『학원』 매체의 이념과 성격이 기성시인의 시적 경향과 맞닿아 있는지 살피고, 한국전쟁의 상흔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고찰하는데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거시적으로는 한국 청소년문학사의 흐름과 정체성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해방과 애국: 전후 시정신과 민족시의 전개

해방 직후 시 문단은 1)식민지 시대 문학의 청산과 2)새로운 민족문학의 건설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응답해야 했다. 문단을 재정비하면서 대부분의 시인은 식민지 시대에 대한 반성과 함께 한국문학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데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 해방을 기점으로 하여 한국전쟁에 이르는 1950년대는 민족문학의 새로운 인식과 그 확립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기성문인은 무엇보다 먼저 식민지 시대 문학의 청산을 강조하면서 일제의

12) 단, 본고에서 『학원』 1권 2호(1952.12.01.)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밝혀둔다.

13) 『학원』 매체에 수록된 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존 한국문단에서 활동하고 있던 기성시인의 작품(7권 7호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학원시단’에 속하는 기성시인을 포함)과 『학원』 매체에서 자체적으로 중·고등학생의 작품을 모집하여 선발된 시(독자의 시)가 그것이다. 이를 ‘학원문단’이라 명명했다.

강압적인 통치 아래 이루어진 민족정신의 위축을 벗어나 민족문화의 방향을 바로잡고자 노력한다.¹⁴⁾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문학적 이념으로 갈라진 좌·우익문단은 서로 다른 민족문화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면서 대립하게 된다. 정치 세력의 사상적 대립이 민족 분열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각종 정치·사회단체가 서로 다른 이념을 내세우며 대립하게 되자, 문단에도 여러 분파가 성립되어 갈등을 드러내게 된다.¹⁵⁾

좌익 계열의 조선문학가동맹의 조직에 정치적 입장을 반대했던 민족진영의 문인은 오상순, 박종화, 김광섭 등이 설립한 중앙문화협의회를 중심으로 전조선문필가협회(1946.3.13.)을 창설하면서 민주주의 국가 건설에 공헌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앞장선다. 이 단체에 가담하고 있던 서정주, 조지훈, 박두진, 박목월 등은 별도로 조선청년문학가협회의를 조직하여 문학 활동을 이어나간다. 당시 친미(親美)적 성향을 표방하고 있었던 『학원』 매체에 참여한 기성시인은 해방시단에서 우익 계열의 민족문화를 전개하면서 이념적 편향을 경계하고, 문학의 자율성과 심미(審美)주의적 순수성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¹⁶⁾

그러나 미국적 가치 지향과 남한의 문학적 전개가 1950년대 잡지 매체의 선전적 파급력과 만나면서 ‘민족’과 ‘순수’의 의미는 당대의 구체적 현실과 특수한 상황을 간과하고 있는 비난과 논쟁을 피하기 어렵다. 시대적 혼란 속에서 민족문화의 발전과 전후 국가의 재건이라는 목표의 수반이 『학원』 매체에도 드리워졌고, 『학원』 매체가 발간된 시점인 1952년 11월은 한국전쟁이 한 참 치열했던 기간이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극에 달했으며, 그 긴장이 남한의 정치적 상황에도 고조되고 있었다. 더욱이 민족상잔(民族相殘)의 경험은 보이지 않는 이념에 대한 전쟁이었고,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남한의 이데올로기의 충돌로 인한 비극적 참상이었다. 각 진영의 이

14) 이는 문학의 영역에만 그치지 않고, 교육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문교부는 1949년 『문화론』을 발간하여 중학교 사회생활의 임시 교재로 사용했고, 일반 청년훈련, 성인교육에도 이용했다. 문학을 포함해 사회 전반적으로 민족-문화에 대한 위상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15) 권영민, 『해방직후의 민족문화운동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7~8쪽.

16) 조연현, 「현대작가론 박두진」, 『학원』, 8권 11호, 대양출판사(학원사), 1959.11., 34쪽.

데올로기에 대한 대립으로 인해 문학계에서도 남한의 정치적 분위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학원』 매체에서 ‘해방’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애국’의 의미는 당시 남한이 지향했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정착 과정에 문학계가 국가수립을 위해 필요한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¹⁷⁾는 논리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학원』 매체가 주력한 독자층은 젊은 ‘세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현재를 포함해 미래의 국가존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따라서 『학원』에 수록되어 있는 시가 주목했던 ‘해방’과 ‘애국’의 그 양가성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매체 속의 시단의 분위기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 몰아치는 괴로움이 임종모양 급하던 밤은
“해방”의 위대한 날을 나아주다

할머니는 능숙의 태극기를
대낮에 꺼내들고 허둥지둥 나오고
큰 기쁨은 슬픔과 통해
눈물 주먹으로 닦으며
해태앞 큰 길을
어영 어영 물어 건느는 젊은이도 있었다 (중략)

이제 쇠사슬을 쥔 북방의 검은 손이
새모이 민족의 발목을 노리는데
우리 다시 뜨겁게 손을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8.15는 오는데
8.15는 또 오는데

- 盧天命, 「八一五는 또 오는데」 일부¹⁸⁾

17) 이은주, 「1950년대 문학비평의 세계주의와 미국적 가치 지향의 상관성- 김동리의 세계문학 논의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18, 상허학회, 2006, 24쪽.

18) 편집부, 『학원』, 3권 8호, 대양출판사(학원사), 1954.8., 45쪽.

㉠ 남에서 북에서 삼천리에서
막힌 가슴 터져서
강토가 뚱뚱 뜨고
하늘이 드높던 날

그날로 가자! 그날로 가자!
누가 가로 막았던가
누가 쳐들어 온 길이나
젊음아 왜 머뭇거르느냐
천만년 이어선 영혼들
핏줄같이 흐른다 북으로 간다
영원히 산 날 그날이 왔다
오랑캐 몰고 이땅을 받들자

- 金玼燮, 「그날로 가자」 전문¹⁹⁾

㉡ 천추에 사모치는 원한
뼈를 깎는 설움에서 벗어나
우리 겨레 해방을 맞던 달 8월이여! (중략)

그러나 8월의 하늘엔
작열하는 태양이 있어
나부끼는 깃발 속에 민족의 함성 일어오거니

이 감격 이 추억을
기리기리 간직하고
우리들—
대한의 내일을 빛내가리라.

- 吳相淳, 「八月의 노래」 일부²⁰⁾

19) 편집부, 『학원』, 3권 8호, 대양출판사(학원사), 1954.8., 44쪽.

20) 편집부, 『학원』, 4권 8호, 대양출판사(학원사), 1955.8., 66쪽.

노천명, 김광섭, 오상순이 외쳤던 ‘해방’의 의미는 표면적으로 식민지 시대를 벗어나 민족의 영광을 되찾은 날이요, 분단된 현실에서 마주한 그날에 대한 그리움이다. 이들에게 해방은 모든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인간 본연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시의 정신적인 자유를 획득하게 했고, 일제의 식민지 지배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고 민족의 조화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좌우 진영의 대립이 격화되고, 냉전의 분위기가 고조되던 시점에 이르러 ‘해방’을 노래함은 광복에 대한 기쁨을 상기시킨다기보다는 “대한의 내일”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놓여 있었다. 노천명에 의하면 그날의 영광과 감격은 온데 없고 “이제 쇠사슬을 낀 북방의 검은 손이 / 새모이 민족의 발목을 노리”니, 암담한 현실에서 우리는 “다시 뜨겁게 손을 잡는”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연대의 필요성은 일본 제국주의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주권을 회복했던 해방의 날은 ‘북’이라는 또 다른 적으로부터의 해방이라 볼 수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조선의 해방이라는 민족적 감격을 대체로 단순한 웅변식의 어조나 절규, 탄식으로 표현하고, ㉠에서처럼 ~하자와 같은 청유형의 어조로 청자에게 행위를 함께 할 것을 선동한다. 그 선동의 대상은 바로 『학원』 매체의 주도적 독자층이었던 청소년, 젊은 소년이었다.

그렇다면 “젊은” 소년에게 ‘해방’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주요한은 “8.15 해방은 결코 우리 민족 운동의 종점이 아니며, 오직 한 개의 시기의 구획점(區劃點)인 동시에 더욱 중대한 다음 시기에 출발이다.”²¹⁾라고 역설한 바 있다. 젊은 소년은 새 시대를 담당해야 할 주역이요, 선진(先進)이 민족의 자아 발전을 위해 바친 희생과 노력을 완성하는 실천적 주체이다. 민족 자아 완성 운동의 일환이었던 해방을 진정 완성할 주체가 바로 소년이다. 말하자면 1950년대 소년의 사명은 역사의 어느 시대보다도 무겁고 컸다. 그들에게 요구된 것은 민족의 자주권을 옹호하고, 위대한 민족 문화를 창조해 자손만대(子孫萬代)의 행복을 전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분단된 현실을 개척해 통일 조국을 건설하는 일이다. 앞서 살펴본 세 편의 시에서도 소년은 간접적

21) 주요한, 「해방의 역사적 의의」, 『학원』, 3권 8호, 대양출판사(학원사), 1954.8., 38~43쪽.

으로 머무름의 주체가 아닌 애국적 방향으로 나아감의 주체로 표상되고 있다. 이것은 『학원』의 매체 이념과도 일맥상통한다. 『학원』 매체에서 소년에게 지속적으로 “도의(道義)”가 강조된 것은²²⁾ 민족 문화의 부흥을 꿈꾸며 예술·과학·기술적 방면에서 활발한 창조의 날개를 펼치며 착실과 협동의 정신 합작의 기능을 연마해 민족 도의에 노력해 그들의 비약(飛躍)이라는 목표를 함께 이룩하자라는 목적이 있었다.

민족문학을 전개한 우익 시인에게도 광복의 영광을 회상하는 일은 남한 사회에서 민족 결속을 위해 중요한 과업이었다. 1950년대라는 시대적 전환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해방 직후 그날의 격동기를 회상하는 일은 1950년대 민족문학론과 해방 직후 민족문학론과 직접적인 연관성²³⁾이 있기 때문이다. 해방직후의 우익의 민족문학 전개는 주로 일제 통치하의 기형적 문학에서 그 ‘전통성’을 회복하는 일이었고, 따라서 민족의 해방을 맞이한 날은 일종의 창조적 진통기가 되어야²⁴⁾ 했다. 친미적 성향의 『학원』 매체가 표방했던 강력한 계몽적 목적과 해방 이후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 우익 민족문학을 전개해야 했던 문인이 만나면서 국가존립과 민족 결속성이 확립된 것이다. 이에 반해, 소련의 공산주의를 표방하거나 좌익 민족문학에 서 있던 문인은 한국전쟁 이후 ‘정부 주도하의 단일 이데올로기의 담론화 속에서’ ‘반공’이라는 국가 기조 아래 공격의 주된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한국전쟁 이후 발간된 『학원』 매체에서 ‘해방’이라는 민족시의 전개는 ‘반공’과 만나면서 남한 사회의 국가 기조, 국민의 기본 소양, 사회적 결속력을 창출해 내는 동력원이었던 것이다.

한편, 『학원』에 수록된 시에서 애국적 전개는 주로 ‘3.1운동’이라는 민족 운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3.1운동은 일제에 국권을 강탈당한 후 전개된 민족해방운동이었다. 3.1운동을 계기로 민족운동의 세력은 정세 변화에 따라 다양한 활로를 찾으며 세계관, 정치체제의 수립에 따라 분화하였다. 3.1운동 이후 민족운동은 일제의 강력한 힘에 밀려 침체를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3.1운동의 열기는 당시 사회 전반에 커다란 ‘문화운동’을 불러왔고, 실력

22) 장수경, 앞의 책, 2013, 58쪽.

23) 김영민, 앞의 책, 2000, 81쪽.

24) 위의 책, 50쪽.

양성을 통해 신문화건설을 주창하는 주된 실행기관은 청년회였다. 실력양성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 신교육보급이 그 수단으로 제기되면서 향학열이 급격히 증가하였다.²⁵⁾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개로 볼 때, 3.1운동은 국권을 되찾기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이었지만, 이후 이어진 문화운동을 바탕으로 한 실력양성의 중심에는 ‘청년’이라는 세대가 존재했다. 따라서 문화운동의 기조가 된 3.1운동은 당시 ‘청년 세대’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사건이었다. 청년 세대 가운데는 문화운동으로 증가된 신식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포함되었다. 이때부터 학생은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들의 투쟁과 저항은 일제에 대항하는 항일의식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3.1운동 이후 6.10학생운동을 비롯해 광주학생운동까지 식민지 시대의 학생운동은 일제침략이 노골화 되던 시점에 그들이 자신들의 저항의식을 표출한 사건이면서, 나라의 독립, 국권회복과 관련된 애국적 항일민족운동이었다. 3.1운동에 대한 파급력은 문학계에도 영향을 끼쳤다. 1950년대 한국전쟁의 충격은 문학에서도 분단시대 민족문학사의 새로운 단계를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족문학의 개념의 전개과정에서 문학의 전통성을 회복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고, 반제국주의와 반봉건주의 정신을 생명으로 하는 민족문학은 민족의 역사적 주체성이나 민족혼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였다. 3.1운동은 우리나라의 끼친 파급적 영향력만큼이나 민족문학의 ‘민족’에 대한 애국적 전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지만, 이후 반공문학론에 밀리는 경향이 있어 그 애국적 의미의 양면을 보아야 한다.

㉠ 이 나라의 三月은
남(藍)빛 봄에서 부터 푸르다.

봄이다! 三月

2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9,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국사편찬위원회, 2003, 17~61쪽.

首都 三角山の 뒤편리가
삼동 얼음 속에서
너울을 벗어 남빛으로
파아랴다.
거룩하도록 파아랴다. 남빛 瑞氣가리어 감돈다.

(이하 생략)

- 朴鍾和, 「三月」 일부²⁶⁾

㉠ (중략)

먼 날의 건설처럼
들었을 뿐이지만
삼월 너와 함께
자유를 달라 싸운 역사—

총과 칼과 불길과 채찍 아래
굴하지 않고 아우성 친
아! 그 소리 “독립 만세!”

만세 속에 붉은 피 흘러
스며들고 젖은 이 땅 위에
우리는 일 없이 자라났다. (이하 생략)

- 이원수, 「삼월아 네 가슴에」 일부²⁷⁾

㉡ 그대를

두 주먹 불끈 쥐고
일어 서던 날,
“자유(自由)”를 위하여
오직 “자유”를 위하여……

26) 편집부, 『학원』, 4권 3호, 대양출판사(학원사), 1955.3., 46쪽.

27) 편집부, 『학원』, 2권 3호, 대양출판사(학원사), 1953.3., 10~11쪽.

그대들
아우성 치며
내닫던 날,
“입”을 찾아
오직 “입”이 그리워……

피의 세례(洗禮)에
거리는
순교자(殉教者)같이……
옥창(獄窓)에도 꽃은 어려
피 빛으로 붉었는다.

산화(山火)처럼 먼저 가는
“만령(蔓嶺)”의 물결,
타고 남은 제 위에
“역사(歷史)”는 불사조(不死鳥)같이
창궁(蒼穹)에 솟구친다.

그대들
두 주먹 불끈 쥐고
일어서던 날,
“영광(榮光)”은 이제사 돌아와
네게 절하도다!

- 金東鳴, 「三一의 讚歌」전문²⁸⁾

『학원』은 매년 3월이면 해당 호에 3.1운동을 기념하는 특집 기사나 작품을 수록하였다. 박종화, 이원수, 김용호의 시도 이때 수록된 작품이다. 3.1운동은 일제에 저항한 역사적 사건으로 민족의 저항을 상징하는 주요한 사건이기도 했으나, 『학원』이 3.1운동을 기획주제로 시를 수록한 대에는 애국에 대한 양가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 이유를 『학원』 3권 3호에 수록된 다음

28) 편집부, 『학원』, 3권 3호, 대양출판사(학원사), 1954.3., 32~33쪽.

의 기사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왜정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은 이후 6개월이나 두고 전국적으로 계속 되어 회를 거듭함이 1,542차례나 되고 모인 사람의 수는 2백만 명을 넘었다.

이와 같이 3.1운동이 잘 진행된 것은 오로지 혈기(血氣)와 정의(正義)에 불타는 학생의 애국심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10여 세의 어린 소학생으로부터 전문학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남녀를 불문하고 오직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거룩한 일편단심에서 목숨을 바친 학생은 이로 헤아릴 수 없다. (중략)

이러한 피 끓는 애국 학생들의 활동결과로 비록 그 때에는 곧 국권을 회복하지는 못하였으나, 뒤이어 상해에서는 대한임시정부(大韓臨時政府)가 조직되어 마침내 오늘의 대한 민국을 이룩하는 토대로 되게 하였다. 그리고 안으로는 이러한 학생들의 애국 사상은 흐르고 흘러서 이후 6.10만세 사건(1926년), 광주(光州) 학생 사건(1929년) 등을 일으키어 우리의 국권 회복에 숨은 힘이 되었다. 3.1운동에 피를 흘린 수만의 애국 학생들에게 길이 영광이 있기를 빈다.²⁹⁾

유홍렬에 의하면, 3.1운동은 왜정(倭政)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 회를 거듭해 진행된 것은 “혈기(血氣)와 정의(正義)에 불타는 학생의 애국심”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오직 국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일편단심에서 목숨을 바친 그들이 (이원수의 시의 구절을 빌려 표현하자면, “만세 속에 붉은 피 흘러”) 지켜낸 이 땅은 이제 한국전쟁으로 분단되어있다. 피 끓는 애국 학생의 활동이 빛을 보지 못한 현실을 초극(超克)하고, 이러한 학생의 애국 사상은 우리 국권 회복에 숨은 힘이 될 수 있음이 자명했다. 그러나 분단된 현실에서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것은 국가적 희생을 강요하기도 한다. 이때의 애국은 민족통일 운동의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하면서 강력한 민족주의와 연결되고, 분열된 민족의 통일국가 성립을 위해 누군가의 정신적 지주로도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9) 유홍렬, 「받들자 三一 정신! - 三一운동 때의 학생들-」, 『학원』, 3권 3호, 대양출판사(학원사), 1954.3., 31쪽.

월탄 박종화의 「三月」에서 “이 나라의 三月은 / 남(藍)빛 봄에서 부터 푸르다.”는 구절은 국가적 단위의 단어인 ‘나라’가 ‘三月’이라는 역사의 시간과 만나면서 이것이 3.1운동에 대한 주제임을 짐작케 한다. 이후 ‘남(藍)빛’과 ‘푸르다.’라는 중의적 표현을 통해 봄의 ‘푸른’, 혹은 ‘맑음’을 강조하면서 3.1운동의 정신이 맑고 거룩하다는 상징적 의미를 내세우고 있다. 3연의 “首都 三角山”은 지금의 북한산을 의미하는데, 서울이라는 공간의 중심산으로 한국 고유의 공간에 대한 성스러운 상징성을 표상하고, 나아가 옛 한양의 도읍지의 설화를 떠올리게 한다. 이는 3.1운동과 삼각산의 역사적 뿌리가 동일함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신성화하는 느낌을 준다. 김동명의 「三一의 讚歌」는 학생의 애국심 고취를 꽤나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피 토하는 저항의 길 위에 쓰러진 이는 마치 “세례(洗禮)”를 받은 “순교자(殉教者)”로 상징되면서 고결하고 중요한 의식을 치루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그 정신은 “역사(歷史)”의 “불사조(不死鳥)”와 같이 “되살아나는 것이며, 그 정신으로 일어서는 순간, “영광(榮光)”이 함께 할 것이라 부르짖는다. 1950년대가 전쟁 이후 남한 사회의 국가 수립,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했던 시기였음을 가만할 때, 역사적 영광의 한복판에서 다시 되살아나야만 했던 애국의 상징성은 단순히 3.1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기념의 의미를 넘어 이 나라의 정통성, 타당성의 의미를 확장한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학원』 매체에 수록된 ‘해방’과 ‘애국’에 초점을 맞춘 작품, 특집 기사의 내용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해방에 대한 기쁨과 학생과 청년단체가 중심이 된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운동의 시초라 할 수 있는 3.1운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면서도, 그 이면에 양가적 의미가 숨어 있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나라에 대한 애국심 고취로 국가 수립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1950년대의 사회·정치적 현실과 당대 문학, 매체의 이념이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3. 순수와 서정: '소년' 화자와 구세대의 현실 인식

이념으로 인한 시단의 분열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학원』 매체에 게재된 시에서는 개인적인 정서와 순수한 시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서정적인 시를 전개했던 조선적 '전통'에 기반을 잃지 않으려는 시도도 엿보인다. 이처럼 우리문학의 전통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시도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해방시단에서 사회적 이념으로 양분되었던 시인의 시적 성향 중에서 우익 민족문학의 전개를 그대로 담아내려고 한 결과로 보는 것이다. 이는 혼란스러운 시대와 무관하게 서정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정치적인 대세를 따르려는 태도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지훈은 독자 문예를 선발하는 선자좌담회에서 “주장한 자기 세계를 만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요. 시에 있어서는 이것이야 곧 생명입니다. 자기 개성을 잘 살려서 끊임없는 탐구를 해야 되지요.”³⁰⁾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조지훈이 그동안 시는 “전인간적 공감성에 바탕을 둔 순수한 시 정신을 지키는 길만이 시를 지키는 길”³¹⁾이라 주장한 내용과 비교해 보면, 그는 순수 지향적 태도를 주창하면서 앞으로의 민족문학의 방향과 지표도 이를 염두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자연과 서정적 자아, 생명의 본질, 개인적 감정 등의 시의 서정성을 놓치지 않는 것은 조선의 문학적 경향을 오롯이 탐구하는 일이자, 식민지 시기 시의 기형성을 극복하는 일이었다.

다른 하나는 『학원』을 구독하는 주된 독자층에 대한 고려였다.³²⁾ 조연현의 「學生과 文學」에서는 “문학의 좋은 점은 학생의 어떤 감동과 흥미를 주는데 있고, 감수성(感受性)이 빠른 소년기에 감정과 풍부한 정서야말로 인간의 인격의 기초”³³⁾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때문에 중·고등학생을 주된 독자층을 삼았던 『학원』 매체는 그들의 문학적 감수성을 키우는 수단으로 '순수시'가 가장 적합할 수 있다는 편집 방향을 첫 호부터 내세운다. 창간호에 수록된 박목월의 「성좌(星座)」, 조병화의 「길을 걷자」, 이원수의 「고무

30) 조지훈·장만영·정비석·최인욱, 「自己世界를 發見하라」, 『학원』, 3권 2호, 대양출판사(학원사), 1954.3., 135쪽.

31) 조지훈, 「순수시의 지향 - 민족시를 위하여」, 『백민』, 백민문화사, 1947.3., 167쪽.

32) 이는 〈독자 문예〉를 선정하는 선자로 활약한 기성 시인의 세계관에서도 확인이 된다.

33) 조연현, 「學生과 文學」, 『학원』, 3권 2호, 대양출판사(학원사), 1954.2., 82쪽.

신」, 김용호의 「가을이 흐르다」 4편 모두 이에 해당되는 작품이다.

김동리가 그간 비평계에서 주장한대로 '순수'란 모든 비문학적 야심과 정치주의에 분연히 대립하는 정신이자 그에 도전하는 정신이라면, 1950년대 잡지가 표방했던 계몽적·정치적·이념적 성격과 관계에 대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학원』 매체에서 강조해왔던 친미, 보수, 반공 이데올로기 등과 같이 정치적·이념적 성격은 '순수'한 시와 등치될 수 있는가 물어야 한다. 그것이 수록된 잡지의 편집 방향이 '순수'하지 않다고 본다면, 순수의 서정을 강조했던 시인의 시는 『학원』 매체와 상치(相馳)적 관계에 놓여있게 된다. 그렇다면, 『학원』에서 순수와 서정을 논의함은 다른 목적을 가정해 볼 수 있다. 『학원』에 수록된 학원 시단의 시인과 당대 우익 민족문학론을 이끌었던 문인과 일치한다면, 우익 민족문학론이 전개했던 민족문학=순수문학이라는 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념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었던 시기에 '순수'를 표방한 시가 잡지에 수록된 것은 정부수립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순수문학에 대한 성격에 관한 논쟁을 지속할 수 없었던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순수문학론에 관해 비판한 일 자체가 문학관의 차이를 드러내는 일이라기보다는 마치 국시인 반공 이데올로기를 위반하는 일처럼 받아들여지는 문단 분위기 때문이었다.³⁴⁾ 이후 비평계에서 다시 문학의 순수성과 현실참여에 대한 여러 논쟁³⁵⁾이 있었던 것은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에 걸쳐서부터였다.

길을 걷자.
열매와 같이 익은 심장을 안고
길을 걷자.

가을을 걷자.
낙엽과 같이 나풀거리는 외로움에 쌓여
가을을 걷자.

34) 김영민, 앞의 책, 2000, 230쪽.

35) 김영민, 『한국근대문학비평사』, 소명출판, 1999, 503~522쪽.

길.

그리운 것 없이 그리운
하늘을 걷자.
길을 걷자.

마음의 호수를 돌아
가을을 걷자.

- 조병화, 「길을 걷자」 전문³⁶⁾

위 시에서는 화자의 일상은 계절감으로 충만하다. 화자=시인이라는 시 문학의 전통에 따르자면, 이 시의 화자는 어떤 고통도 갈등도 느껴지지 않는 삶을 받아들이고, 현실의 안위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시대에 고통 없는 삶이란, 고통을 온전히 자신의 내부로부터 견뎌내는 것을 의미한다. 화자는 일상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신의 시적 세계에 포용하고, “익은 심장”, “외로움”, “그리운”과 같은 자기 정서를 고스란히 받아들인다. 그렇기에 길을 걷고, 가을을 걷고 하늘까지 걷는 이상적 행위는 현실적 고통을 초월해 자신의 내면세계에 깊이 충실하고자 했던 시인의 성숙(成熟)적 태도, 즉 인간됨의 길이다. 화자가 청유(請誘)의 어조로 청자에게 그 길을 걸어갈길 제안해보는 것은 함께 걸어줄 타자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권유(勸誘)라 보아야 한다. 길이란 곧 방향성이다. 그런데 이 시는 1952년, 즉 전쟁이 2년이나 지속된 상황 속에서 『학원』 창간호에 실린 작품이라는 점을 가만해야 한다. 이때의 현실은 전쟁이란 폭력성으로 온통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폭력적 현실로부터의 내면의 눈을 가리고 있을 때 ‘길’을 걷자하는 것은 차라리 휴머니즘에 가깝지만, 길을 걷는 행위는 보이지 않는 방향을 하염없이 그들에게 제안하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쟁에 대한 허무, 생활 터전을 잃은 절망과 불안 속에서 지내야 했던 젊은 ‘세대’에게 구세

36) 편집부, 『학원』, 1권 1호, 대양출판사(학원사), 1952.11., 22쪽.

대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소년기에만 품을 수 있는 인간성에 대한 탐구이면서 어른답지 않은 어떤 태도에 관한 것일 수 있다.

지난 밤에 꿈에 나는 어느 산의
낭떠러지 아래 못물 가에

낮 모르는 소년과 함께
바윗돌을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못물 가엔 한 그루의 감나무가 있어
그 반 쯤 붉은 뜨린 열매들을
물 위에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하늘이여!

내 꿈과 생시는 늘 이와 같이 있게 하소서.

- 서정주 徐廷柱, 「내꿈과 생시는」 전문³⁷⁾

「내꿈과 생시는」에서 화자는 “낮 모르는 소년”을 꿈에서 만나지만, 이는 자신의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꿈에서 만난 것이라 볼 수 있다. 꿈에서 만난 소년은 화자의 어린 시절의 ‘나’이다. “꿈”은 “생시”와 대립을 이루는 상징적 세계이지만, 늘 같이 있고 싶은 이를 보게 하는 장치이자, 소년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다. 따라서 꿈을 꾸다는 것은 현실의 내가 늘 가고 싶은 곳으로 인도하는 행위이자, 소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시 말해 꿈이란 장치는 화자가 어린 소년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토록 소년을 만나 함께 있어야 하는 이유는 현실에서 내가 이미 그 시절을 지나쳐버린 성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소년을 만난 꿈의 세계는 황폐한 현실과 전혀 다른 세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꿈은 그것이 표현하는 대로 우리가 동

37) 편집부, 『학원』, 3권 9호, 대양출판사(학원사), 1954.9., 240쪽.

조하도록 부추긴다. 따라서 꿈의 세계와 생시가 일치되는 일이란 불가능의 시간이요, 그 시간을 지나온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다.

지구엔
저것 보세요.
저 높고 광활한 하늘 푸름에다
Z 기가 남기고 간 저 고운 비행구름을.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요. 글씨입니까.

나도 저러한 시를 쓰고 싶습니다

높고도 광활한 인류의 마음 푸름에다
저같이 커다랗게 남길 수 있는
곱고도 장쾌한 저러한 시를.

그리하여 밤이면은
어두운 야공 외로운 인류의 마음 위에
염염히 주홍빛 불꽃 타는 글자들!
단 한자라도 그러한 시를 쓰고 싶습니다

- 유치환, 「비행구름」 전문³⁸⁾

유치환의 「비행구름」은 전쟁 후 쓰인 시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청초하고 유려하다. 화자는 보다 과감하고 직접적 언어를 구사하면서, 꽤나 구체적인 시적 대상을 통해 자신의 소망을 드러낸다. 더구나 어린이의 목소리를 차용해서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화자의 순진함을 칭송하게 만든다. 아름다운 상(像)과 같은 시를 그리고 싶은 화자는 자신에게 높은 인류애를 기대한다. 유치환의 전후 시작(詩作) 활동이나 시적 감각으로 비춰보면, 시가 가진 아름다운 인격은 어둡고 외로운 인류의 마음에 불꽃을 비추고 극복할 수 있는 지

38) 편집부, 『학원』, 4권 6호, 대양출판사(학원사), 1955.6., 48~49쪽.

해를 주는 것이다. 그에게 시를 짓는 행위는 개인의 개성을 발현하는 것이면서 자신을 수양하는 길이고, 그 수양의 길은 필연적으로 소년기의 감수성을 자극한다. 그럼에도 이 시는 부자연스럽다. 전쟁의 상황이 끝나고 난 뒤에도 한동안 팽팽한 긴장감이 고조되었던 시기에 매일 같이 나의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Z기를 목격한다면, 언제 나의 머리 위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공포심이 먼저 들 것이다. 그러나 시인의 눈은 그 Z기가 사라진 뒤에 남겨진 것을 본다. 그것은 무서운 Z기가 남기고 간, 고운 비행구름이다. 따라서 시인의 의식 속에는 전쟁으로 인한 휴머니즘의 상실 속에서도 부정적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쟁 이후에 남겨져 있는 누군가를 위해 아름다운 시를 쓰겠다는 소망을 제시할 뿐이다.

정리하면 『학원』 매체에서 기성 시인이 추구했던 ‘순수’에 대한 강조는 시의 전통성 회복, 민족문학의 방향, 독자층에 대한 고려의 목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시를 표방함에 있어 간과한 것은 전쟁으로 인한 황폐함, 객관적 현실의 관념을 부정하는 비합리주의적 사고방식에 입각하여 소년의 사회관계를 규제하는 일체의 법칙을 적대시하여 정치를 거부하고 오직 자아의 내면에만 파고 들어가, 여기에 유일한 생활의 기쁨을 찾으려는 태도에 있다. 이를 통해 역사와 현실로부터 도피하기를 꾀한다든가, 단순히 현실을 거부하여 주관적 진실만을 보는 협소한 시각을 가지게 할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1950년대 『학원』의 시적 경향이 대부분 순수시에 치중해 있었다는 것은 민족적 현실에 아무런 발언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4. 역동적 소년과 교양적 소년의 형상

1950년대는 ‘전쟁’이라는 비극적 상황에서 세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실존, 상실한 인간의 모습으로 고민했던 때였다. 전쟁의 참상은 인간의 불안의식과 인간성 상실의 문제를 불러 일으켰고, 문학에서도 시인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적 상황, 인간을 사지로 몰아가는 파괴적 현장에 대한 절망감을 표출하고 있었다. 부정적인 현실에서 마주한 냉혹한 실존적 한계는 파괴되어 가는 인

간의 모습을 구체화했다. 그러나 학원시단은 상실과 절망에 대한 논의에서도 젊은 세대를 겨냥한 역동성과 교양적 인간을 통해 현실극복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학원』의 〈권두의 말〉에서도 소년이 가져야 할 덕목에서 주로 강조되는 것은 현실 극복의 의지와 교양적 인간이었다. 외국어 대학 학장인 박솔음의 「젊은 벗들에게!」라는 글에는 젊은이의 전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서, 그들이 가져야 할 미래지향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젊은 이의 기상은 높고, 의기는 세다. 높은 산에 오르다가 쓰러지는 이도 젊은 이, 조국을 지키어 목숨을 던지는 이도 젊은 이, 공상을 타고 아니될 일을 꾸미는 이도 젊은 이다. 남을 누르고 일어서며, 험한 성벽을 뚫고야 마는 이가 젊은 일진데 어려운 학과에 겁을 내어 험잡이나 인정을 통하여 겨우 낙제나 면하려는 비겁한 일이 젊은 이에 있어서 될가 보냐?

젊은 이의 독립성은 억세다. 그대들이 제 살림을 맡을 때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며 처자를 가꿀 수 있겠는가? 농지의 개혁이 있는 오늘이고, 사업의 자유 경쟁이 격심함 이 때이니만큼 부모의 유산을 기대하고 있음은 어리석은 일이니 알몸으로 이 사회에 내던져 놓여도 오투기 같이 발딱 일어설 실력을 갖추자.

젊은 이의 활동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북에서 공산군이 노리고 있고, 남에서 일본이 무장을 하니 가난한 이 국민을 이끌고, 폐허된 이 땅에 서서 내일의 생존에 책임을 져야만 할 그대들의 각오는 어떤고! 우리가 소위 선배로서 그대들께 남겨 준 것이 없이 집만 지우게 됨을 못내 슬퍼하면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의 행복을 젊은 여러 벗들에게 부탁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은 애달프다.³⁹⁾

그가 이야기한 젊은이의 전형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던지며, 현실의 운명에 굴복하지 않는 독립적 존재이다. 즉 역사적으로 대안적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적 존재이며, 그들은 현실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대안적 세계를 지향한다. 그들의 기상과 의기는 폐허가 된 지상의 모든 불안을 없애고

39) 편집부, 『학원』, 4권 9호, 대양출판사(학원사), 1955.9., 25쪽.

미래의 생존과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극복의 상징과도 같았다. 전쟁이 지난 후에 젊은 이의 모습은 상처의 피해자가 아닌 폐허감을 극복하고 현실의 상황을 타개하는 지향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는 1950년대 한국전쟁이 끝난 후 국가 재건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덕목이기도 했다. 미래에 대한 목표와 방향의 비전을 명확히 세우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지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목표의 달성에는 구성원의 생각과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였다.

그 역동성의 밑그림은 어떤 억압과 폭력에서 그 생명력과 저항성을 갖게 되는데서 출발한다. 그것이 대체로 시에서는 요소들 간의 저항에 대한 의미론적 다중성과 결부되어 나타나기도 한다.⁴⁰⁾

또 들킬라! 가만히 가만히 발자국 소리를 죽이고
살금 지나가려도 어느새 그 껌새를 알아 채고는
즐거움에 이내 어쩔 줄을 몰라 시시덕거리는
재롱장이 장난꾸러기 우스개장이 앞새들!

이제라도 어린 앞새들은 그 즐거운 바람결이 하마
나 오랴! 기다려 — 먼 데서 사뿐히 기적만 들려
와도 마구 팔들을 흔들고 소리 치며 제 먼저 좋아
라 옷자락에 매달리려 — 시방 꼼짝 않고 숨들을
모고 기다린다.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오늘은 웬 일인지 아무리 기다려도 기다
려 보아도. 머리 위에 새파란 하늘만 더욱 새파랳
뿐 영 아니온다. 아니 오는 것이다.

웬 일일까? 어쩐 일일까?
조그만 머리들을 갸웃둥거리고 생각해본다. — (중략)

40) 문학비평에서 텍스트의 역동성은 주로 의미론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즉 단일한 논리에 의해 단일한 의미로 결정되는 텍스트는 고정된 것으로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다중적인 의미가 간소한 텍스트는 역동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최문수, 『윌리엄즈의 시의 역동성』, 『현대영미시연구』 27, 현대영미학회, 2021, 94쪽).

아무리 기다리고 생각해
보아도 바람결은 오지 않
는다. (중략)

하늘은 파랑기만 한데 —
날씨는 좋기만 한데 — 그
즐거운 바람결은 오늘은
어디로 가버리고 어린 잎
새들은 이렇게 기다림에
가엾게도 지쳐 있다.

- 유치환, 「바람을 기다리는 잎새들」 일부⁴¹⁾

그러나 유치환의 시에서 소년의 역동성은 의미론적 차원이 아니라 “잎새”라는 바람결에 자연스레 훑날리는 물리적 차원의 움직임, 이러한 행위가 자연의 에너지 전이과정을 언어로 구현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1연에서 “잎새”는 “재롱장이”, “장난꾸러기”, “우스개장이”처럼 의인화 과정을 통해 소년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구체화 한다. 다만 “먼 데서 사뿐히 기적만 들려와도 마구 팔들을 흔들고 소리치며 제 먼저 좋아라 웃자락에 매달리려”는 모습은 “즐거운 바람결”이 다가올 그 ‘때’가 올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다. 그들은 그때를 위해 “시방 꿈쩍 않고 숨들을 모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상반된 에너지가 상충하면서 생성되는 긴장의 미학은 서로 다른 두 행위의 모습 속에서 요소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보이고, “바람”이라는 외부적 요소가 오기 전까지 다른 자연의 시어들과 형성력을 구현하고 있다. 잎새의 행위는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시어가 다양하게 조합되면서 시 전반에서 구체적인 소년의 역동적 속성을 한층 부각시키고, 기다림의 늪에서 지쳐 상실한 과정을 오히려 의미 있게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41) 편집부, 『학원』, 4권 9호, 대양출판사(학원사), 1955.9., 60~61쪽.

비를 뿜을 듯한
무거운 하늘을 이고서도
오히려
길길이 서서
일렁이고
굽일고
너울치는
교정의 배중 나무들

맑은 호수를 바라보는 마음에
계절의 정신이
새로운 호흡과 음향으로
바람을 타고 온다.
낡은 의상을 벗어 버리는
새 계절의 웃음소리……

아아 가슴을 풀어 헤치고
삶의 긍정에서 오는
저 바람소리를 듣자

대지를 힘차게 딛는
한 젊은이
퇴색한 그림자를 끌고
우연히 사라져가는 생명을
휘돌아 쫓는
시원한 바람소리가
교성을 마구 뒤흔들고 있다.

- 金鍾權, 「季節의 清新」 전문⁴²⁾

42) 편집부, 『학원』, 3권 11호, 대양출판사(학원사), 1954.11., 245쪽.

소년의 역동성은 계절의 변화 과정에서 오는 한 폭의 이미지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시의 1연에서도 나타나듯, “무거운 하늘”을 극복하는 것은 “맑은 호수를 바라보는” 소년의 의지인데, 계절이 주는 새로운 “호흡”과 “음향”은 그들의 맑고 강한 생명력을 자극해 “낡은 의상을 벗어 버리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때의 “낡음”은 ‘전통’적 시간을 의미하기 보다는 전쟁의 참상을 겪었던 지난날이며, “새 계절”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긍정,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저항적 태도를 상징한다. 창조력 있는 자연의 흐름은 순응적이기 보다는 역동적인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서 사물은 고립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 계절의 자연스러움은 변화의 과정 속에 있고, 변화의 물결을 온 몸으로 받아들이는 긍정적 참여의 속에서야 말로 “대지를 힘차게 딛는” 역동적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낡음을 새것으로 바꾸는 이 전복적 주체는 계절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맞물리면서 인간의 의지, 저항성을 드러내며 그것이야 말로 대안적인 세계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려는 그들의 역동성일 것이다.

그렇다면 소년의 역동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바로 변화의 바람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일 것이다. 그 힘의 원천은 바로 ‘독서’를 통한 창조적·교양적 지성과 문화에 있다. 시에서 등장하는 책을 읽는 소년의 형상은 소년이 자신의 주체성을 인식하는 과정 속에 있고 현실의 모순을 인식하고 미래(장래)를 준비하는 주체이지만, 변혁의 주체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추구가 그저 관념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내 하숙집 지붕 위에는
한쌍의 성좌가
자리잡고 있었다.
일곱개의
가즈런한 촛불같은 성좌……
나는 그 아래서
책을 읽는다.
장래를 꿈 꾀다.
— 그리고 깊은 겨울 밤
바람소리를 듣는다.

인생은
조용히 밟아오르는 층계라 싶다.
나이와 더브러
한결 마음 가난하고
한결 가차운 별빛에 이마가 씻겨야 하는
흰 백발을 날리며
별에 가 닿는 나.....
그것은 황홀한
꿈이다.
그런 밤에는
성좌는 좀더 소리높이 울며
우리 하숙 지붕위에
멈은다.

나는 책을 읽다말고
나는 이층에 오르다말고
혹은
잠자리를 떠다말고
아아
일곱개 간즈런한 촛불같은
성좌를 바라본다.
그것은 나직한 노래를 듣는 것같이
늘 마음이 썩해지는 일이다.

- 박목월, 「성좌(星座)」 전문⁴³⁾

㉠ 소년은 별의 속사김 속에 자라오.
소년은 달처럼 슬픔이 빛나오.
소년은 하늘빛 같이 맑은 웃음이 있오.
소년은 뒤를 돌아보지 않소.
그것은 태양을 닮은 가슴이 있기 때문이요.

43) 편집부, 『학원』, 1권 1호, 대양출판사(학원사), 1952.11., 10쪽.

소년은 한길만을 가오
꽃이 피면 향기 속에
낙엽 지면 슬픔 속에
바람 불면 바람을 뚫고
어둠이 오면 서성거려
소년은 한 길만을 가오.

태양은 언제나
소년의 가는 길에
등 뒤에서 빛나고 있오.

- 박치원, 「소년의 노래」 전문⁴⁴⁾

『학원』의 창간호에 수록된 첫 시인 「성좌(星座)」에 등장하는 소년은 책을 통해 장래를 꿈꾸고 있다. 그러면서 이상적 “황홀한 꿈”을 추구하지만,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자신의 어지러운 마음을 숨길 수 없다. 그 복잡한 내면의 세계는 젊은 시절에 찾아오는 갈등과 방황을 의미하며, 그것은 책을 읽는 행위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나 잠을 자는 행위와 같은 일상 속에서도 문득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 혼란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소년이 그것을 자각하고 스스로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에서 성좌는 높은 이상, 꿈처럼 쉬이 다가갈 수 없는 곳에 존재하지만, 소년의 하숙집 위에 언제나 머물고 있기도 하다. 깊은 밤에 책을 읽는 행위는 고요히 성좌를 만날 수 있는 일이며, 그 “별에 가 닿”을 수 있는 “층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소년의 역동성은 ㉡의 “태양”을 닮은 강렬한 마음을 통해 한 길만을 걸어 갈 수 있는 의지를 표출한다. 1950년대는 불확실의 시대였고, 실존의 터전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이 심화되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소년이 가진 역동적 이미지와 교양적 이미지는 존재의 부재, 인간성 상실이라는 혼돈의 현실과 만나면서 증폭되고 있었다.

44) 편집부, 『학원』, 5권 6호, 대양출판사(학원사), 1956.6., 56쪽.

5. 피란지 부산의 기억과 고향의 연(戀)

1950년대는 인위적인 재난 시대인 동시에 전쟁 체험과 전후의 분위기가 편재된 수난 시대였다. 전쟁에 대한 체험은 인간의 정신사나 문학적인 상상력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고, 그 상상력의 층위는 어떤 근본적 지각변동이 일으킨다. 따라서 전쟁에 대한 체험이 전후 의식과 깊이 관련된 것은 불가피하다. 죽음, 폐허, 절망, 상실, 이산, 폭력 등이 일상적이었던 전쟁을 체험한 국민의 대다수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고향을 떠나 피란살이의 고통을 느껴야 했다. 비극적인 한국전쟁이 가져온 고통과 상처는 세대를 가리지 않았다. 1·4후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란길에 올랐고, 대구와 부산에 몰려들었다. 사실상 국가로부터 별다른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은 피란민의 신분이었다.

한국전쟁은 한반도의 대부분을 파괴하면서도, 절망 속에서도 언제나 희망의 싹은 돌아나듯이 전란을 피해 대구·부산으로 몰려든 문인들로 인해 새로운 문학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이는 이른바 전무후무한 ‘피란문단’의 탄생이었다. 피란문단은 이렇게 대한민국 문학계를 대표하는 수많은 예술가를 지역의 한 가운데 모이게 되면서 시작됐다.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마음을 달래고, 낯선 피란지에서 창작을 위한 영감을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독특한 문단이 형성됐다.

인위적 재난이 가진 파괴성으로 인한 피해는 결여된 인간성을 야기했고, 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민족 대이동의 결과로 수많은 실향·피란민이 생겨났다. 한민족 전체의 결핍 상태가 불러일으킨 총체적인 욕구와 갈망이 동족이면서도 적으로 규정된 이울배반적 양가가치와 겹친 결과였다.⁴⁵⁾ 당시 시의 소재는 전쟁 그 자체이거나, 전쟁의 경험으로 인해 받게 된 피해의 비극적인 현장성과 그로 인한 내성화된 후유증의 환기 및 전후 상황과 의식 내용이 되었고, 전쟁터 현장이 곧 시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황폐화되고 불안정했던 사회 속에서 문학과 예술의 응집체였던 『학원』에서도 이러한 작품은 왕왕 목격된다. 부산은 『학원』 매체의 탄생과도 연관이 깊은 곳이다. 출판인 김익달은 전쟁을 피해 부산과 대구로 피란을 다니는 와중에

45) 김윤식·김우중 외 38인,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2014, 400쪽.

1952년 10월 대구시 삼덕동 29번지, 작은 판자집에서 『학원』을 발간⁴⁶⁾했다고 하나, 출장소가 부산에 전신을 두고 있었던 학원사였다. 『학원』 매체와 부산, 피란문인의 만남은 아이러니하게도 파괴적인 한국전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 피난민들이

개울바닥에 판자집을 짓는 것처럼
그대 가슴 한 구석에
집을 짓겠습니다.

다리 위에 꽃전차가 가고
광고 탑의 푸른 싸인이
좌우 언덕에 번쩍거릴 제
그대는 나를 초면이라고 할 것입니다.
달 뜨는 밤에 그대는
옷 벗은 어깨처럼 신비스러울 것이요

바다 건너는 큰 배들이 손짓하는
항구에 안기려고 그대는 숨차할 것입니다.

나는 그대 기억에 표적도 아니 나고
그대 감각을 건드리지도 않고
오직 나만 알 수 있는 안식을
그대 품안에 가질 것입니다.

장마통에 그대 정열이 넘쳐 흘러
나의 판자집을 흔적 없이 씻어 버려도
나는 서럽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 말없이
다시 조그만 집을 지을 것입니다.

46) 창간호의 판권장을 보면, 『학원』을 출판한 대양(大洋) 출판사는 학원사의 전신이며, 부산 초량동 2가 53, 임시 본사 대구 삼덕동 29라고 적혀 있다. 실체는 대구가 본사였고, 부산에는 출장소가 있었다(최덕교, 『한국잡지백년』 3권, 현암사, 2004, 513쪽).

피난민들이
개울바닥에 판자집을 짓는 것처럼
나의 쉬일 곳을
그대 가슴 속에 지으렵니다.

- 주요한, 「판자집」 전문⁴⁷⁾

㉠ 수영 바다 보이는 언덕에
유엔 묘지의 깃발은 날리고 있다.
그리고 내 가슴 한 끝에는
표 없고 이름 없는 어린 무덤들이 있다.

기도 없고 비석도 없는 마음의 묘지에
움츠리고 있는 영혼들
젖먹이로부터
헤어진 삼보 쓴 장난꾸리기 까지
철 모르는 나이에 죽은 그들이다.

살아서 이를 아는 이 없었으니
죽은 뒤에 더구나 기억할 이 없을 것이다.

청천강과 대동강 얼음과 함께 사라진 그들
삼팔선 근방 이름 없는 산길에서
어머니 등에 얹인재로 잠든 그들,

다리 끊어진 한강 물에 숨어버린 그들
눈 나리는 추풍령 길가에 혼자 자는 그들
군산 바다 짠 물결에 휩쓸려간 그들,

부산 거리에 한뼘자면서
폭탄에 날아간 온돌방을 그리던 그들
구두약 어깨에 메고

47) 편집부, 『학원』, 3권 10호, 대양출판사(학원사), 1954.10., 236쪽.

불 타버린 교실을 생각해보던 그들,

수영 바다 보이는 언덕에
유엔 묘지의 깃발이 날리고 있고,
그리고 내 가슴 한 구석에는
표 없고 이름 없는 얼니 무덤들이 있다.

- 주요한, 「수영 바다 보이는 언덕에」 전문⁴⁸⁾

주요한의 두 시에서 등장하는 판자집, 수영 바다 보이는 언덕⁴⁹⁾이 존재한 기억의 공간은 ‘부산’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를 포함해 당시 피란 생활을 체험한 피란민들에게 부산은 꽤나 특별한 공간의 기억으로 남아 있다. 무엇보다 피란민을 힘들게 한 것은 갑작스런 공간의 이동, 즉 이산(離散)으로 인한 ‘경계 밖으로 쫓겨난 삶’에서 오는 불안과 슬픔이었다. 디아스포라(Diaspora)적 삶의 배경이 된 한국전쟁은 난민을 출현시켰다. 더욱이 이는 ‘낮선 것, 타자에 대한 혐오’를 불러왔고 혼란한 가운데 난민을 연민하는 휴머니즘은 기대할 수 없었다.

인간에게 기대할 수 없는 상실감과 소외 속에서 겪었던 난민의 체험은 자신이 타자적인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는 인식은 경계인으로서의 삶을 받아들이면서도 “판자집을 짓는” 극복의 의지를 보인다. 그러나 무관심과 냉대, 이질감과 질시를 받았던 상처는 “마음의 집”을 지어도 씻을 수 없는 고통임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전쟁의 체험은 가족의 강제 해체, 파멸을 야기했다.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을 포함해 누군가의 어머니, 어린이는 날아오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다. 실제로 실향·피란으로 인한 거대한 빈곤 대중의 출현⁵⁰⁾은 전쟁의 시련 속에서 엄청난 희생을 강요했다. “생존” 자체가 위태로울 만

48) 편집부, 『학원』, 4권 11호, 대양출판사(학원사), 1955.5., 52~53쪽.

49) 「수영 바다 보이는 언덕에」에 나오는 곳은 1951년에 설립된 부산 남구에 위치한 유엔군 묘지인 부산재한유엔기념공원으로 보인다. 이곳은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군 묘지로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 장병 유해가 안장되어 있다.

50) 장세진, 『숨겨진 미래: 탈냉전 상상의 계보 1945~1972』, 푸른역사, 2018, 62쪽.

큼 빈곤이라는 화두는 당시 전란을 피해 이천 리 부산에 도착한 피란민에게 중요한 문제였다. 아사자가 속출할 정도로 절대적 결핍 수준과 식량난에 시달림은 특정인을 가리지 않았다. 급격한 공간의 변화로 인한 적응의 기회도 순순히 주어지지 않았고, 환대(歡待)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생산기반이 파괴되었고 공업생산력은 전쟁 이전의 절반, 농업생산력은 1/4로 주는 등 재건에 심각한 타격⁵¹⁾이 있을 정도였다. 한국전쟁은 이념의 대립이었지만, 일반 민중에게는 당장의 끼니 걱정이 문제였던 것이다. 생존을 위해 “구두약을 어깨에 메고 / 불 타버린 교실을 생각해보던 그들”은 생계전선에 나선 직업 소년이 대다수였고, 「구두닦기 소년의 노래」⁵²⁾에서 소년은 끝없는 물질적 요구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의 강한 기둥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학원』에서 전쟁의 비극적 상황을 노출하면서 피란민에 대한 시를 수록한 것은 시대적 상황에 대한 반영의 주요하게 생각한 까닭으로 보인다. ‘소년’이라는 특정 세대를 포함해서 어지러운 시대에 태어나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의 군상(群像)을 대변하는 시는 얼룩진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자기 각성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갑작스런 전쟁 소식에 피란을 떠나게 되면서 기약 없는 기다림의 연속을 살아내야 했던 그들의 애환을 고스란히 바라본 것은 현실의 시적 수용에 부신했던 흔적이었다.

남빛 출렁이는
남쪽 바닷가
갈매기 떼
벧사공의 노래를 따르는 곳—
아!
그 곳은 나의 그리움, 나의 보금자리.

51) 김인호, 『공존을 위한 한국 현대사』, 국학자료원, 2008, 79쪽.

52) 당신의 구두를 닦아 드리면 / 내 맘도 스스로 빛난 답니다 / 우리는 언제나 남을 위하여 / 작은 뜻을 버리고 나선답니다 / “일하자 배우자 희망의 길로” / 우리의 스로오강 만만세! // 괴로움 서러움 아무리 와도 / 굳굳히 막으며 이긴답니다. / 우리는 모두들 찌칙한 소년 / 장래엔 나라의 기둥이 됩니다 / “일하자 배우자 희망의 길로” / 우리의 스로오강 만만세! // 아리우○ 글, 정도선 사진, 「구두닦기 소년의 하루 - 구두닦기 소년의 노래」, 『학원』, 4권 2호, 대양출판사(학원사), 1955.2., 21~24쪽.

너홀너홀 태양이 서녘에 기울고
잔잔한 물결 흰 모래에 모일 때
아가야
네가 부르는 노랫소리
곶가에 서러웁고나!

가느단 바람은 옷자락을 스치고,
기쁨을 실고 돌아오는 고깃배들은
가까운 듯 먼 듯 수평선에 오른다.

하얀 빛 검은 빛
물결은 밀려오고 밀려가고
다정스레 모여선 바닷가의 집들은
이제 봄 다사로운 저녁을 저녁을 마련하리라.

- 이봉래 李奉來, 「바닷가에서」 전문⁵³⁾

이봉래는 함경북도 청진(淸津)에서 출생하였으나, 한국전쟁 직후 피란지 부산에서 모더니즘 시운동을 전개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바 있다.⁵⁴⁾ 그에게 부산이라는 공간은 피란지이기 전에 제 2의 고향이면서, 후반기 모더니즘 시운동의 동인을 이룬 곳이다. 이봉래를 포함한 학원시단에 참여한 시인의 대다수는 전중기 부산 지역거주 혹은 경남 지역, 대구 지역에 거주한 문인이었다.⁵⁵⁾ 피란문단과 지역 문학사회와 연계되어 탄생한 『학원』은 “그리움”과 “보금자리”가 깃든 부산의 기억을 상기시킨다. 매체의 탄생과 피난의 설움이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있는 임시수도 부산 지역의 공간은 작자를 포함해 수백만 피란민에게 공유된 곳이기도 했다. 이 시에서는 전쟁의 극한 상황이 현실감 있게 그려지고 있진 않지만, 시인의 기억 속에서 그리움과 맞물

53) 편집부, 『학원』, 4권 4호, 대양출판사(학원사), 1955.4., 265쪽.

54) 권영민, 앞의 책, 2017, 170쪽.

55)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부산 지역의 매체인 『애국시33인집』의 부록 ‘집필시인약력과 『문화세계(文化世界)』 1권 3호의 특별대부록이다. 이를 통해 일시적으로 체류한 문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이순욱 외, 앞의 책, 2018, 29~34쪽).

리면서 고깃배가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오는 공간으로 재탄생되고 있었다. 전쟁으로 인한 실향의 경험 체험했던 문인이었으나, 부산은 자신의 문학 활동을 펼치면서 고향의 그리움을 채워준 공간이었다.

『학원』에서 유독 고향의 그리움, 향수(鄉愁)를 주제로 한 시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전쟁으로 분단되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시인을 포함해 인간에게 고향은 자기정체성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간⁵⁶⁾이자 자신의 근원(根源)이다. 따라서 고향은 혈연적 동일성과 사회·문화적 동일성을 바탕으로 하는 융합과 통합의 세계이자 나를 완성하는 세계라 할 수 있다.⁵⁷⁾ 그렇기 때문에 실향의 경험은 곧 자기 뿌리를 축출해 낸 것과 동일 선상에 있는 것이다.

유치환은 “너무 들뜬 이름으로 환멸을 주는 명승고적보다는 오히려 숫지게 묻혀서 반할만큼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을 나는 더 사랑한다. 푸른 바다가 허리띠처럼 감긴데다, 앞으로 비옥(肥沃)한 들이 툭 띄었고 뒷동산 동백꽃이 사철 등불을 켜고 있는 내 고향은 평범하다면 평범하나 어디다 내세워도 자랑일 수 있는 숨은 낙원이다.”⁵⁸⁾라고 자신의 고향 통영을 회상한 바 있다. 시인에게 고향은 종종 ‘부모’, ‘낙원’ 등과 같이 묘사되었다. 그들에게 고향이란, 지난 세대와 미래 세대를 막론하고 인간이 회귀하고픈 오래된 미래였다.

㉠ 성좌와 더불어
나의 마음은
밤 하늘의 넓은 길을 거닌다.

이슬에 젖은 눈썹
꼭 다문 입

반짝이는 동자에

56) 김종옥, 「실향민 의식과 자기정체성의 회복」, 『한국현대문학연구』 9, 한국현대문학회, 2001, 294쪽.

57) 정원숙, 『1950년대 공포와 죽음의 시학 고석규편』, 시지시, 2016, 111쪽.

58) 유치환·김팔봉 외, 「八道라! 비단江山 내故鄉의 가을」, 『학원』, 2권 10호, 대양출판사(학원사), 1953.10., 14쪽.

지혜롭게 어리운 빛이 있어
나의 마음은
먼 은하수의 그 언덕을 거닐고 있다.

밤의 과수원에 나린 가을은
낙엽의 노래를 불러오고
도회의 불빛은
영롱한 생각을 모운다.

책장 밑에서 우는 귀뚜라미
때때로 바람은 창을 스치고
머나먼 고향은 오늘도 천리 0 오백리—

성좌와 더불어
나의 마음이 고향의 그 하늘을 거닐고 있을 때
성좌와 함께 나의 가슴은
가을 낙엽이 굴르는 소리 속에
다사로운 생각을 모우고 있다.

- 이봉래, 「성좌와 더불어」 전문⁵⁹⁾

㉠ (중략)

나에게도 아름다운 고향은 있었느니라.
고향은 언제나 나에게
산골 사투리로 옛 얘기를 들려 주었고
두엄 냄새 풍기는 팔로 껴안아 주었다.
그리고 이제 쫘 앞산 뒷산
새빨간 단풍은 또 얼마나 고았느냐.

밤이면 널따란 마당
키다리 버드나무와 나란히 서서

59) 편집부, 『학원』, 4권 12호, 대양출판사(학원사), 1955.6., 155쪽.

달 구경 하는 것이 즐거웠다.
형도 누나도 동생도 없었건만…….(중략)

아아 나를 길러 준 고향아
너의 아늑한 품
그 흙 냄새 풀 냄새 두엄 냄새 투성이
품으로 품에라도 좋으니
날 가게 해 다오 단 한번만이라도…….)

- 장만영, 「창에 기대여」 일부⁶⁰⁾

이봉래의 시 「성좌와 더불어」와 장만영의 시 「창에 기대여」에서 연(戀)은 공통적으로 북쪽을 향하고 있다. 시에서 직접적으로 ‘북’쪽의 방향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두 시인 모두 각각 함경북도 청진(淸津), 황해도 연백 출신이다. 피란과 정치적 이념으로 인해 남향해야 했던 이들에게 고향을 떠나오는 일은 갑작스러웠다. 정체성을 잃은 상실감 속에서 고향으로 표출되는 ‘북’에 대한 그리움은 ‘北-반공’이라는 「학원」의 이념적 치우친 함축적 상징이 아닌, 원치 않게 타향살이를 해야 했던 실향 시인에게 자기 본연의 모습을 회복시켜주는 실마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 고향을 회상하는 일은 슬픈 즐거움이고, 황량한 타지 생활을 달래주는 애향심(愛鄉心)의 표현이다. 고향은 내 손과 발이 닿을 수 없는 “성좌”처럼 갈 수 없는 곳이기에 차라리 그곳은 ‘없는(ou-)’ ‘장소(toppos)’에 가깝다. 그래서 그들은 렌즈에 비친 그림인양 심상에 고향을 그리듯 새기는 것이다.

이처럼 『학원』 매체에 ‘고향’을 주제로 한 시가 많이 수록되어 있는 이유는, 근원에 대한 상실감이라는 공통적 위기의식이 1950년대 전반에 팽배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전쟁으로 인해 남북분단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귀향(歸鄉)하지 못한 이들은 모두 갑작스레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있었다. TV나 라디오가 귀하던 1950년대는 신문·잡지는 문화나, 교양, 사상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이기도 했지만,⁶¹⁾ 독자 또한 매체를

60) 편집부, 『학원』, 5권 11호, 대양출판사(학원사), 1956.11., 198~199쪽.

통해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고향을 주제로 한 시는 『학원』 매체의 기획 속에서 탄생하여 독자의 그리움을 대변하였다. 따라서 이때 화자가 그린 고향의 공간은 남-북, 미-소, 자유-공산이라는 이념과 정치성이 배제된 채 표현됨으로써, 개인의 정서와 맞닿아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으나 매체에 수록되면서 독자들에게 공유되고 소통된 대중적 공간이라는 이중적 공간이라 볼 수 있다.

6.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따르면, 1950년대 『학원』 매체에 나타난 기성 시인의 시가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고등학생 문예지’라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한국문학에서 해방 이후부터 편성된 시 문단이 1950년대까지 이어지면서 시의 경향이 우익 민족문학론의 경향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민족상잔(民族相殘)의 경험한 시인의 시에서는 해방과 애국의 정치성을 띤 시가 이념의 대립 문제와 만나면서 과열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것은 『학원』이 강력한 계몽성을 바탕으로 국가존립의 선전 역할을 하면서, 그 민족적 운동을 완성할 주체인 젊은 소년이 능동의 주체로 표상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친미(親美)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던 『학원』 매체는 해방시단과 만나게 된다. 그들은 우익 계열의 민족문학을 전개하는 문인이 주축이 되어 민족시를 전개하거나, 심미(審美)주의적 순수성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국가 수립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과 전쟁으로 인한 황폐함, 객관적 현실의 관념을 부정하는 협소한 시각을 읽어 낼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작품 속에서 젊은 세대의 역동성과 교양적 이미지를 부각하기도 하였다. 1950년대는 불확실의 시대였고, 실존의 터전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이 심화되었던 시기였다. 이때 소년이 가진 역동적 이미지와 교양적 이미지는 존재의 부재, 인간성 상실이라는 혼돈의 현실과 만나면서 증폭되었다. 학원시단은 상실과 절망에 대한 논의에서도 젊은 세대를 겨냥한 역

61) 정보석, 「잡지 변천사」, 『신문연구』 가을 68호, 관훈저널, 1998, 55~56쪽, 75쪽.

동성과 교양적 인간을 통해 현실극복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한편, 전쟁의 체험을 통해 현실의 시적 수용에 부심한 흔적도 엿보인다. 전쟁으로 인한 피란민으로서의 경험은 한국문학에서 ‘피란문단’을 형성하게 했으며, 그들은 『학원』 매체에서 피란지의 주요 배경인 부산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세대를 뛰어 넘는 인간의 군상(群像)을 대변하고 있었다. 또한 분단으로 인한 실향의 경험은 근원의 상실감으로부터 자기 본연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애향심(愛鄉心)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1950년대 『학원』의 시적 경향은 해방 직후부터 폭넓은 시단을 형성하면서 새롭게 확장했던 시적 세계를 탐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속에서 기성시인은 냉전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시대적 정치적 요구에 순응하면서 국가존립의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고, 혼란 속에서도 순수성을 강조하면서 기존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 그 대세를 그대로 따르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미래 세대에 대한 현실극복의 의지를 이미지화하면서 그들의 역동성을 부각하고, 교양적 인간이 되기를 강조하였으나, 이는 한국전쟁이 끝난 후 국가 재건과 발전을 위해 청소년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기도 하였다. 미래에 대한 목표와 방향의 비전을 명확히 세우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지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목표의 달성에는 구성원의 생각과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였다. 그러면서도 전쟁에 대한 체험과 분단으로 인한 실향의 경험을 매체를 통해 독자와 공유하면서 독자층의 확대를 꾀했던 전략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원시단의 시적 경향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당대 사회의 핵심 주제인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인간상과 문화를 기반으로 한 주체를 탄생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그것은 인쇄 매체인 『학원』에 수록되면서 청소년 독자 및 대중에게 전파되었고, 당대 세대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들을 응집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것이 이후 한국시의 창작경향 중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담론을 형성하는 주체를 성장시키는 동기를 제공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참고문헌

1. 사료

편집부, 『학원』, 대양출판사(학원사), 1권 1호(1952.11.01.)

편집부, 『학원』, 대양출판사(학원사), 2권 1호~8권 12호(1953.01.01.~1959.12. 01.)

2. 논저

강만길 외, 『解放前後史의 認識』 2, 한길사, 198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9,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국사편찬위원회, 2003.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2, 민음사, 2017.

_____, 『해방직후의 민족문화운동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김사홍, 「1950년대 전쟁 체험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김영민, 『한국근대문학비평사』, 소명출판, 1999.

_____, 『한국현대문학비평사』, 소명출판, 2000.

김윤식·김윤중 외 38인,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2014.

김인호, 『공존을 위한 한국 현대사』, 국학자료원, 2008.

김종욱, 「실향민 의식과 자기정체성의 회복」, 『한국현대문학연구』 9, 한국현대문학회, 2001.

김준현, 「전후 문학장의 형성과 문예지」,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김한식, 「학생잡지 『학원』의 성격과 의의 - 1950년대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28, 상허학회, 2010.

_____, 『현대문학사와 민족이라는 이념』, 소명출판, 2009.

박연희, 「1950년대 문화연구 동향과 지성사적 가능성」, 『한국학연구』 29,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3.

유은지, 「1950년대 한국 고등학생들의 집단정체성에 대한 연구: 학생 잡지 『학원』의 「독자문예」를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38,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2020.

윤상일, 『학원 김익달 평전』, 지상사, 2016.

- 이봉범, 「전후 문학 장의 재편과 잡지 『문학예술』」, 『상허학보』 20, 상허학회, 2007.
- 이순욱, 『근대시의 전장』, 소명출판, 2014.
- 이순욱 외, 『피란수도 부산의 문학풍경』,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8.
- 이은주, 「1950년대 문학비평의 세계주의와 미국적 가치 지향의 상관성- 김동리의 세계문학 논의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18, 상허학회, 2006.
- 이재오, 『한국 학생운동사: 1945-1979년』, 파라북스, 2011.
- 장세진, 『숨겨진 미래: 탈냉전 상상의 계보 1945~1972』, 푸른역사, 2018.
- 장수경, 『학원과 학원세대』, 소명출판, 2013.
- 장은영, 「전쟁 경험의 문학적 수용과 시적 형상화 양상 재고(再考) - 육군중군작가단 기관지 『전선문학』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63, 한국비평문학회, 2017.
- 정보석, 「잡지 변천사」, 『신문연구』 가을 68호, 관훈저널, 1998.
- 정원숙, 『1950년대 공포와 죽음의 시학 고석규편』, 시지시, 2016.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 3권, 현암사, 2004.
- 최문수, 『윌리엄즈의 시의 역동성』, 『현대영미시연구』 27, 현대영미시학회, 2021.
- 학원 김익달 전기 간행위원회, 『학원세대와 김익달』, 학원사, 1990.
- 황혜진, 「『학원』의 심사평에 나타난 학생문예관 연구」, 『국어교육연구』 1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6.

〈Abstract〉

The Study on the Poetic Tendencies Recorded in 『Hakwon』 Media in the 1950s

Yun, Hyeon-Ji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oetic tendencies of 『Hakwon』 in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the media published in the 1950s by subject, and examines the symbolic meaning of the scars of the Korean War in the works of established poets. Despi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um of 'Middle and High School Literary Journal', the literary character of 『Hakwon』 contains poems from Korean literature since liberation and the works of poets who appeared newly in the 1950s. You need to figure out the trend.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selected works of established poets who participated in the media publication from a total of 81 issues of 『Hakwon』 published in the 1950s and examined their meanings in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As a result, the experience of national reconciliation showed a tendency to be overheated as the poetry of liberation and patriotism met with the conflicting ideology problem, and the established poets who participated in the media of the pro-American By developing right-wing national literature during the liberation movement, he expressed the autonomy of literature and the purity of aesthetics. Also, while singing a boy who contrasts with the human figure of uncertainty and loss of existence, he emphasized the will to overcome reality through dynamism and cultured human beings aimed at the younger generation.

On the other hand, through the experience of war, traces of careless acceptance of reality can be seen. The experience as a refugee due to the war led to the formation of a refugee group, and it was a reminder of the memory of Busan, the main background of the refugee camp, and

represented a group of humans that transcends generations. The experience of displacement due to division revealed the will to restore one's original nature from the sense of loss of origin and the will to return home.

* Key Words: 『Hakwon』, 1950s Media, Juvenile Literature Magazine, Korean War, Post-War Poetry

· 논문투고일: 2022년 6월 13일 · 심사완료일: 2022년 7월 16일 · 게재결정일: 2022년 7월 25일
